

禪은 알음알이 보다 의심을 소중히 여겨

선

다만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하여 “원만하기가 래허공과 같아서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다.”고 하였다.

‘태허공’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 본래의 모습이다.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한계 그어질 수 없으므로, 할 수 없이 비유하여 겨우 ‘허공과 같다’고 표현해 보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된 구절은 삼조 승찬(僧璨)스님의 <선심명>에 나오는 말이다.

그저 한가로워 일삼을 것이 없어서, 다른 경계를 억지로 끌어들이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설명하려 들면, 바로 알음알이(識)가 되고 만다.

삼승에서는 알음알이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일승에서는 그저 단도직입으로 계합해야 한다. 이 도리는 분별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안종사는 학인이 도를 물어 올 때, 눈앞에 분명히 드러난 실상을 즉각 보여준다. 이때 인연 있는 사람은 바로 계합하여 끝내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음 가졌던 의심이 설상가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다. 선(禪)은 언제나 알음알이가 아니라 의심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원성실성(圓成實性)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무는 썩어처럼 유전(流轉)하네.”라고 하였다.

원성실성(圓成實性)이란 본래자리를 말한다. 중생은 인연 따라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따라나서기 때문에, 본래 자리를 상실했다고 오해하고 부평초처럼 떠돈다. 그래서 고해(苦海)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이(不二)의 도리를 밝히면, 망념이 일어나든 말든 그 자리는 늘 발밑에 여여하게 놓여있다. 항상 진리를 밟고 사는 사람은 고해가 그대로 피안임을 사무쳐 알기에, 어디서든 안심입명이다. 위의 말은 부대사(傅大士)가 <금강경>에 불인 계승에 나온다. 이어지는 대목은 “남이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할진대, 마음 밖의 자취에 끄달리지 말지니.(欲識無生忍 心外斷行蹤)”이다.

그대들은 말한다. “나는 알았으며, 배워 얻었으며, 깨달아 깨달았으며, 해탈하였으며, 도리를 얻었노라.” 하지만 자신 있는 데서야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약한 데서야 그 뜻이 통하지 않으니, 그때워 견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한가하고 일 없도록 하여 쓸데없이 마음을 쓰지 말라.

평소 자신 있는 곳에서는 통하더라도, 사고라도 당해서는 혼비백산 한다면 그 공부는 아직 멀은 것이다. 황벽스님은 배후에게,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늘어놓아 괜히 스스로의 마음만 엉키게 만들지 말고, 모든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일없음[無事]에 착안하라고 일러준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9)



범이사 주지

不二의 도리 밝히면 그 자리는 늘 여여해 고해가 피안임을 알기에 어디서든 ‘안심입명’

장애가 곧 ‘알음알이’ 이것이 망상 만드니

모든 지견 내려놓고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가야

불법 안팎이 따로 없으니

구족해 새로 얻을 바 없다

일심(一心)일 뿐이어서

중생과 부처가 무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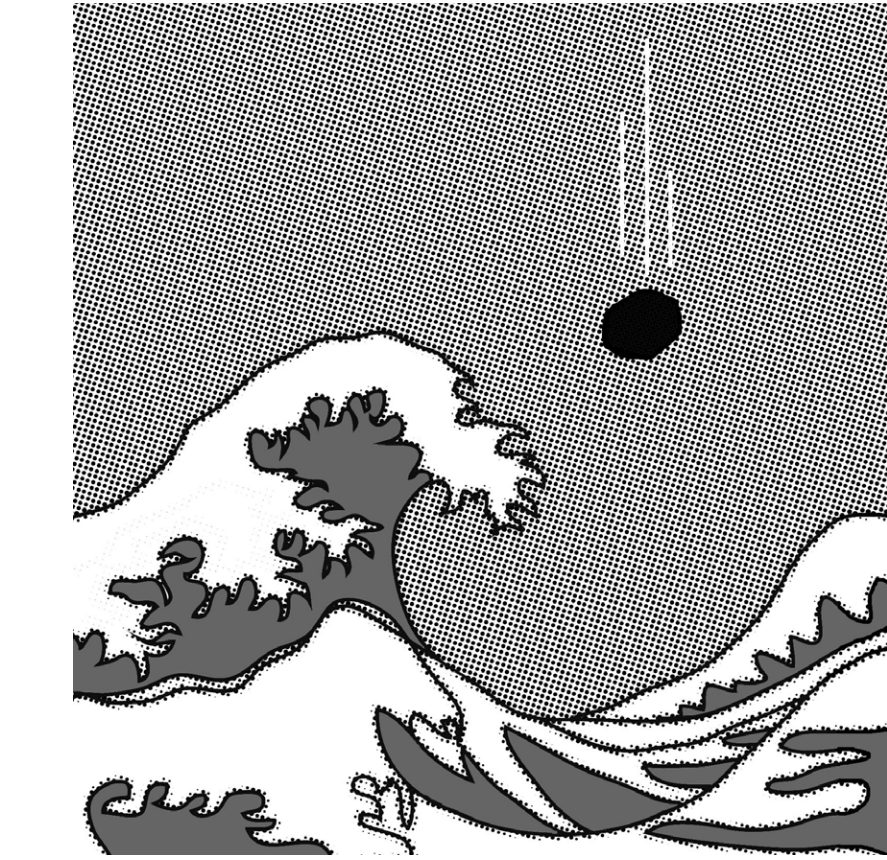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다. 배후는 황벽스님과 그의 첫 만남에서 뭔가 통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음알이를 쌓는 공부가 아니라 모든 지견을 내려놓고 묵묵히 본래 일었고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가도록 당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침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오직 모든 견해를 설치너라.”고 한 것이다.

한 번 마음을 밝혔으면, 이제는 내려놓고 쉬면서 믿음을 다져야 한다. 여기서 분별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믿음에 의지하여 알음알이를 내려놓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 공부를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가 알음알이다. 배후는 평소 지식인인데다 불교공부를 많이 하여, 마음에서 알음알이가 자꾸 일어나 스스로 망상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조사들께선 마음을 밝히기 위해 수행에 임할 때는, 그동안 배운 것을 내려놓는 ‘사교 입선(捨教入禪)’을 하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위의 말은 승찬스님의 <선심명>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배적인 견해와 외적인 견해가 모두 잘못이며, 부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나쁜 것이다.”고 한 것이다.

불법은 중도(中道)로서 언제나 불이법(不二法)이기에, 안팎이 따로 없다. 또한 본래 구족하여 새로이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새삼 부처의 도를 구할 바도 없고 마구니의 도라고 없을 바도 없다. 그저 부증불감(不增不減)인 것이다. 또한 일심(一心)일 뿐이어서, 번뇌 즉 보리이며, 중생과 부처가 무차별이

다. 선(善)을 세우기 위하여 악(惡)을 없애려는 순간 상대적인 이분법에 떨어지므로, 진정한 선(善)은 선악이나 시비가 끊어진 중도 자체인 것이다. 위의 인용은 보지(寶誌)화상의 <대승찬(大乘讚)>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잠깐 상대적인 견해를 일으켰다가, 그만 두 철위산으로 떨어진 것이다.

철위산이란 세상의 끝에 있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아무리 문수보살이라도 상대적인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본지풍광과는 심판 팔천리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불요집경(諸佛要集經)>에 나오는 대목이다.

문수보살은 창된 지혜고 보현보살은 방편의 지혜라고 한다. 하지만 서로 상대되는 창과 방편이 구경(究竟)에 이르러 창도 방편도 사라지면, 오로지 한 마음뿐인 것이다.

부처의 또 다른 그림자가 문수·보현을 낳았으니까, 문수·보현도 부처로 귀결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구경에 이르면, 창도 방편도 다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창도 필요하고 방편도 필요해서, 팔만사천 법문을 통해 인연의 끈을 열어놓은 것이다. 구경이란 근본 실상자리인데, 방편으로야 따로 구경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본연의 입장에서는 직하여 구경이고 선 자리가 그대로 진실되게 [立處皆眞] 때문에 따로 구경을 논하지 않는다. 범부는 다만 미혹해서 선 자리가 그대로 구경처럼 줄 모르는 것일 뿐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



“화를 낸다든지 해친다든지 하는 마음을 결코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승만경〉

명언(名言) 제조기

이 ‘에세이 경구’를 기획하게 된 것은, 불교에는 명언이나 금언(金言)이 참 많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명언, 금언, 격언, 그리고 속담들은 말은 간략하지만 그 의미는 풍부한 말이다.

우리가 지금 ‘경(經)’으로 옮기고 있는 ‘수트라(sūtra)’라는 산스크리트 단어 역시 그러한 의미의 말이다. 아주 간략한 경구(警句)를 ‘수트라’라고 한다. 너무나 짧아서, 도저히 그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석서가 필요해진다. 주석서가 탄생하는 배경이다.

그러한 명언들을 좀 찾아서 대중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기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평가가 있으리라 보지만, 실로 경전은 명언의 보고(寶庫)임을 나는 새삼 느끼고 있다. 경전 자체가 ‘명언 제조기’에 다름 아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 불교사의 많은 스님들 역시 명언을 남긴 분들이다. 그 중에, 내가 참으로 기이(奇異)하게 생각하는 ‘명언 제조기’는 신란(親鸞)스님이다. 오늘 우리가 읽는 명언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신란 스님의 명언이 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그대의 눈 앞에서 누군가가 그대의 아이를 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는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놀라운 말씀 아닌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만약 불교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 근거로서는 이 이상 더 명확한 것이 있을 수 없다. <범구경>에서도,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원한을 잊음으로써만 원한은 갚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 부처님 말씀의 의미를, 신란 스님만큼 더 분명하게 주석한 분은, 내가 아는 한, 없다.

전쟁의 심리학

화를 내는 마음, 이를 우리 불교에서는 세 가지 독한 마음(三毒)의 하나로 일컫는다. 진심(嗔心, 瞋心)이 그것이다.

우리는 진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진심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듣고 말하곤 한다. 불교에서는 늘 그렇게 강조해 왔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그것을 항상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만 말해 왔다는 점이다. 범부는 다만 미혹해서 선 자리가 그대로 구경처럼 줄 모르는 것일 뿐이다.

려야 열반에 들 수 있다는 식으로만 말이다. 옳은 말씀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서도, 세계로서도, 인류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런 점에서, 승만부인의 서원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중생에 대하여 화를 낸다든지 해친다든지 하는 마음을 결코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윤리, 혹은 세계윤리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점은 좀더 분명히 의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테러, 그리고 학살 등은 우리 인류의 역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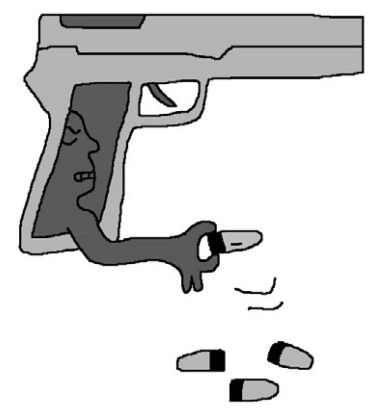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진보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류의 지식들은 충분히 발달했지만, 우리들 마음 속에서 “화를 내는 마음”은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일어나는 폭력들은, 전쟁들은, 탐욕도 탐욕이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는 마음”을 어찌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화를 내는 마음”을 내다버리는 것은, 바로 전쟁을 예방하는 일로 연결된다. 그럼 악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가? 화를 내는 대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자. 그리고 안타까워 하고, 염려하자. “화를 낸다든지, 해친다든지 하는 마음”의 포기를 우리 불교만큼 명확하게 설하는 가르침이 또 어디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전쟁이나 폭력에 대하여 불자들이만큼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이가 되지는 않는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에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 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증릉

◆ 공연 내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단체공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원효성사 성지 혈사(穴寺) 12처 석굴사원 골굴사에서 범종 도안(디자인)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굴속에 들어 기도하 하니 일만 근심이 사라지고, 마에여래불의 서광이 해마다 기적을 나뉜다”라 기록된 신라 함월산 기림사사적기(1740)나 겸재 정선의 ‘골굴석굴도’, 정시현의 ‘산증일기’에 보이는 골굴사는 15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천생 석굴을 갖춘 아름다운 기도 도량입니다.

선무도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국제포교도량 골굴사에서는 원효성사의 일심·화쟁 사상을 담아 세계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종의 도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재능 있는 불자 예술가의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골굴사 천년 미래의 꿈을 장인의 예술혼으로 승화시킬 범종 도안에 큰 서원을 품은, 뜻 있는 예술가의 열정과 재능을 기다립니다.

■ 도안의 내용 :
신라 천년을 품은 골굴사의 역사, 원효사상, 선무도, 21세기 신 문화콘텐츠를 지향하는 메시지

문의 054)744-1689, 745-0246

대한불교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원효성사 범종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